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 오늘 부활절... 절제·금식으로 모은 금식헌금 드려

1999년 부활절이 밝았다.

교회는 오늘 I·II·III부 예배를 부활절 예배로 드린다.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의 연합된 삶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헌금 시간에는 감사헌금과 고난주간 동안 절제하고 금식하여 모은 금식헌금을 함께 드리게 된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다채로운부

활절 행사를 진행한다.

#### 찬양 예배 시 '부활절찬양'

부활절 찬양이 오후 5시부터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이영기 장로)의 연주로 1층 예배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찬양의 시작은 오르간 연주(연주자 조은주)로 고든 영(Gordon Young)의 부활절 모음곡(An Easter Suite)이 모두를 장식한다.

이어 합창으로 모차르트의 '아베 아베 인간

으로 나신(Ave verum corpus)', 섹스틴의 '오 주여 내 영혼 이끄소서' 그리고 헨델의 '테 데움(Te Deum)' 중에서 '내 주께 찬양과 영광스런 사도의 합창소리'가 연주된다.

중간에 모차르트의 Exsultate Jubilate를 소프라노 독창(독창자 최미현)으로 듣는다.

합창 모차르트의 '영광(Gloria)'으로 오늘 부활절 찬양의 막이 내린다.

지휘는 이광석 선생, 반주는 조은주 집사(오르간), 정은영 집사(피아노)가 맡는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종교의 종말을 말한다. 모든 역사적 종교들이 구원과 영생을 추구했으나 성취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종교의 종말임을 나타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죽었고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으나 다시 사셨고 현재 사시고 다시 오신다. 그는 종교의 실체요, 완성이다. 그는 종교의 종말이시다.

\*\*\*

####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1)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이김의 승리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전 15:53)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고전 15:44)을 입게 될 것이다. 육의 몸은 죽어 썩어질 몸이나, 신령한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이다. 흠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된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전 15:54).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사망을 삼키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사망의 사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다. 그분만이 우주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시다.

2)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다.

#### 부활의 종교

##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김영한 목사  
(장년부지도,  
송실대 기독교대학원장)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전 15:57).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2세기 경의 일이다. 어느 순교자가 왕앞으로 끌려왔다. 왕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버릴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순교자는 그 제의를 일축해 버렸다. 왕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웃으면서 "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추방하

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라고 대답했다. 왕은 화가 나서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몰수하고 네 소유를 전부 빼앗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의 보화는 하늘에 쌓여있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더욱 화가 나서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다. "나는 사십 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왕께서 손댈 수 없습니다."

\*\*\*

우리의 믿음과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의 근거는 부활신앙이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주의 일이란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투신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 일이란 좁은 의미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봉사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다.

부활주일 메시지

부활의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고난의 밤이 종료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경축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인간을 위해 스스로 제물되셨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진리도 위대하지만 사흘만에 다시 사신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1.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인간 사회에는 승패가 교차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꺾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처음에 승리를 거뒀던 적이 없고 나중에 저본 일이 없다고 했는데 월남전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전쟁사에서는 언제나 진리가 최후에 필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으시고 범인처럼 장사지내셨다가 부활로 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불의가 횡행하고 정의가 침묵해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와 진리를 무덤에 잠시 가두어 놓을 수는 있어도, 진리는 죽여도 다시 살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약하셨습니다(고전 15:20).

우리의 육신은 비록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이미 부활하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사 그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내십니다(고전 15:14).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하는 표가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음과 더불어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영원함을 입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홀연히 변화하는 비밀에 대해 말했습니다(고전15:51).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갖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세의 소망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갖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가 죽어도 이별의 슬픔은 있으나 사망의 울음은 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기쁨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갖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며 또한 어둠과 능력을 깨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자마다 새출발하여 새로운 삶을 삽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시간관, 사업관이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영원히 찬양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3-18)



이중운 목사

순례자 킬림

축 예수 부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가 죄로 인해 어둠에 잠혀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이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 없듯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악과 불의의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홀어져 있는 우리 동족 위에 부활의 빛을 비취 주소서.



부활절 찬양에 붙여

# 부활의 주님께 드리는 감격과 감사

이영기(장로, 찬양위원장)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의 부활을 찬양할지어다. 지상의 온 만민들이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1999년도 부활절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온 정성과 가진 열정을 다해 축하하며 즐거워합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신분 변경시켜주시고 마우신 주님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모든 감격과 감사를 아뢰입니다. 비록 테 대음

전곡을 다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지휘자와 온 대원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소박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찬양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모범되고 친실되며 용감한 신앙 생활을 원합니다. 세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되기를 원치 아니하며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의 죄 용서를 비는 마음 주시기를 마음 간절히 바랍니다.



## 쌍둥이와 함께 맞는 부활절

정희자(10교구, 할렐루야 찬양대원)

결혼하면 자연스레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가정은 결혼한 지 4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기가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며 위로했지만 저는 아이를 가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입양, 둘째는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졸랐습니다. 기도하며 한의원, 병원을 병행하며 다녔습니다. 대장 장로님을 비롯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중보기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찬양대원의 6살 바기 아들이 제 배를 가리키며 “집사님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병원엘 갔습니다. “임신을 축하합니다”라는 소릴 들을 때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울컥 쏟아지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받았

습니다. 쌍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온 서울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축하 속에서 두 공주를 처음 안았을 때 전 너무 행복했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이엄마가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중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들이므로 ‘은·혜’를 넣는 것이 어떨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라는 뜻으로 은영, 혜영이로 지었습니다.

유아부에 가면 모니터 속의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보행기를 타고 달려가 설교를 들은 8개월된 은영이와 혜영이를 보며 이번 부활절은 더욱 큰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양대에서 태교를 했고 생후 5주부터 유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두 아이들. 에스더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은영이와 혜영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야고보서	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3월 29일
	말라기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3월 30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3월 30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중윤 목사	4월 8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안진선 선생	4월 1일

부활절 아침에

## 소원

나소정(청년부)

님께서 보내신 흰 옷자락의 천사들이  
내 주위에서 뛰놀고  
님께서 띄우신 빛나는 태양이  
나를 따스하게 비추며  
님께서 선물하신 이 마음의 평안이  
내 속에 넘치나이다.

이 아름다운 날에  
만물에 임하시는 봄과 같이  
내게도 새생명을 허락하신 이여,  
님께 두 팔 벌리고 선 저 식물들처럼,  
또한  
남여 내게도 허락하소서,  
이 번잡한 생각과 고민,  
무섭게 증식하는 욕심과  
돌이키지 못하는 죄성을  
낙엽처럼 떨구고  
오직 님의 태양을 우러러  
한자리에 서서  
말없이 노래,  
쓰러짐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봄에  
솜털같은 부리를 주신 땅에 뵈고,  
푸른 생명의 잎사귀를 돋게 하소서.  
이 피부를 열고  
작고 연한 잎을 피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님의 가을이 올 때  
정직하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그리하여 님의 가을이 올 때  
정직하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나를 있게 하신 뜻에 합당하게 하소서.

내 속에 거둬나는 새싹을  
님의 하늘을 기억하고 앙망하는 기쁨을  
남여 허락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 목회자세미나 내일 휴강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지난 월요일 서울 강남 YMCA대강당에서 시작됐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제 1교시 여호수아 강해에 앞서 이번 학기에는 주제인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Paradigm)" 관해 설명하면서 격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강조했다.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오는 6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며 식목일인 내일은 휴강한다.

### 서울성경학교 개강

평일을 이용해 성경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가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개강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야고보서반, 말라기반, 고린도전서반과 음악교실은 지난 주간 중에 각각 개강했다. 느헤미야반(아담반)은 8일(목) 첫 강의를 시작한다.

한편 월요일 야고보서반은 내일 공휴일인 관계로 휴강한다.

관심있는 성도는 지금도 등록이 가능하다. 각 과목 등록금은 오천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업자의 경우 입학금은 오천원이다(관련표 3면).

### 울 김치세미나 연기

올해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치신학세미나가 무기 연기됐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이처럼 김치세미나가 연기된 것에 대해 교회와 초청대상 국가의 형편과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로 제 10차를 맞게 되는 김치세미나는 당초 일본 목회자를 초청할 예정이었다.

### 4월 학습·세례식

4월 학습·세례식이 21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 교육은 11일(주일), 세례자 교육은 18일(주일)에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있다. 이에 미참하신 성도는 19일(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20일(화)에 있다.

### 교사수련회 22일 개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도야와 흥해작전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4월22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층 예배실에서 갖기로 했다. 주제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나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로 말씀들을 통해 이를 조명해 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99흥해작전에 교회학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 교구일꾼 수련회 15일

교구위원회(위원장 최종시 장로)에서는 교구일꾼들의 영성 강화와 효과적인 교구관리를 위해를 위해 교구일꾼수련회를 4월 15일 개최할 예정이다.

### 다락방별 찬양대회

다락방별 찬양대회 결선이 5월 9일(주일)에 치러진다. 찬양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에서는 해마다 개최하던 가족찬양대회를 올해는 다락방별 찬양대회로 변경 실시하기로 했다. 지정곡 또는 자유곡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각 다락방별, 연합 다락방별 준비가 기대된다.

### 찬양대원 추가임명

6개 찬양대에서 추가로 83명의 대원을 영입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임명된 대원들은 각부별로 선서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 노회 총대 파송

서울 강남노회 제 24회 정기회에 참석할 총대가 결정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이성득 목사가 목사 총대로, 오정수 장로, 박철훈 장로, 이영기 장로, 성준경 장로, 김영준 장로, 김상철 장로가 장로 총대

로 선정됐다.

### 전기섭 장로 협동장로 청빙

당회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다교회에서 장로 취임을 한 후 부득이하게 본 교회로 이적을 한 전기섭 장로를 '협동장로'로 청빙키로 했다.

전기섭 장로는 현재 고등부 교사와 베들레헴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원형애 집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서울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서울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이 홈페이지는 교회 소개와 소식, 주일 설교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순례자 등 자료를 더 보완하여 띄울 예정이며 가능한 성도들의 홈페이지도 링크시킬 예정이다.

관리자는 "아직은 자료와 구성이 미비한 상태이나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일단 개통했다"고 밝히고 관심있는 성도들의 조언과 많은 접속을 부탁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oulchurch.or.kr>이다.

#### 동정

- \* 전기섭 장로(4교구)는 13일(화) 대치동에 한국바이런 주식회사 서울본사를 개업했다.
- \* 이경희 권사(11교구)는 제 15학기 목회자세미나를 위해 바인더 300부를 기증했다.
- \* 조원섭·김혜련 집사(11교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강대상 꽃장식을 했다.
- \* 손동혁 성도(4교구, 손태기·박우욱 집사 차남)는 11일(화) 입대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정무균·이영희 집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 \* 베드로 제 1선교회는 5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X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부활의 진리를 찬양하고 증거할 수있도록
2. 목회자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좌를 위해
3.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